◆ 25년 5월 고3 4~9번

[4~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이성주의 철학자들은 인간이 세계를 인식하는 데에 있어 이성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이성을 통해 세계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그들이 말하는 이성은 두뇌 작용에 불과하며, 인간은 세계의 본질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자신의 주장을 ①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라는 선언으로 집약한다. 그가 말하는 표상이란 인간이 어떤 사물을 인식할 때, 그 사물을 오감으로 지각하여 두뇌 속에 떠올린 이미지이다. 가령 ‘빨갛고 동그란 과일’을 보고 ‘사과’로 인식한 두뇌 작용이 표상이다. 이러한 표상은 충분 근거율에 ② 따른다. 충분 근거율은 인간이 어떤 사물을 표상할 때, 다른 사물과 구분하게 하는 등 현실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두뇌에 작용하는 인간 개개인의 인식 원리이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충분 근거율에 입각한 표상이 현실 세계를 경험하게 하는 근거이기 때문에, 인간이 경험하는 세계는 충분 근거율에 한해서만 인식된 세계라고 말한다. 즉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실제 세계가 아니고 충분 근거율에 입각하여 표상된 것일 뿐이며, 우리가 표상하는 세계는 단순히 두뇌 작용으로 경험하는 환영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다면 쇼펜하우어가 생각하는 실제 세계는 무엇일까? 그는 ‘의지’라고 단언한다. 그가 말하는 의지만 아무런 근거나 이유도 없이 맹목적으로 움직이는 힘이자 욕망으로, 실제 그 자체이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이러한 의지는 충분 근거율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성으로 설명하거나 그 자체를 포착할 수 없다.

하지만 세계의 본질인 의지는 우리가 표상하는 세계와 단절된 무엇이 아니다. 쇼펜하우어에 의하면 우리가 표상하는 세계는 의지가 객관화된 세계이다. 이때 ‘의지가 객관화된다.’라는 표현은 의지가 인간의 감각 기관이 포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타난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의지가 인간의 감각 기관으로 포착할 수 있는 딱딱하고 동그란 형태로 나타났기 때문에 인간이 그것을 충분 근거율에 입각하여 다른 사물과 구분되는 ‘자갈’이라는 존재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쇼펜하우어에 의하면 의지가 객관화되는 정도의 차이에 따라 중력과 같은 자연력에서부터 무기물, 식물, 동물, 나아가 인간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따라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사물은 하나의 의지로부터 비롯하여 각자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므로 의지와 단절된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의지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결국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가 세계의 본질인 의지가 객관화된 표상임을 밝힘으로써 인간이 세계의 본질을 이해할 수는 없더라도 표상으로 그 본질을 경험할 수 있음을 역설한 것이다.

(나)

세계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관념론자들은 세계는 정신의 산물로 보고, 모든 실체는 정신적인 것으로 구성되었거나 비물질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자연주의자들은 세계를 자연과 동일시하며, 모든 실체는 실험과 관찰로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철학자 가브리엘은 이러한 관점들이 서로 각자의 실재만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세계의 본질에 대해 논할 수 없게 만든다고 지적하며, 실재에 대한 새로운 관점인 ③ 신실재론을 제안한다.

신실재론에 의하면 물질적인 것은 물론 비물질적인 것도 실재하는 대상으로 보며, 모든 대상은 각각 어떠한 하나의 대상 영역에 포함된다. 이때 대상 영역은 포함된 대상들을 설명할 수 있는 특정한 법칙을 가지며, 그 법칙은 대상 영역마다 서로 다르다. 이러한 대상 영역에는 대상만이 아니라 대상과 대상의 관계를 담은 정황인 사실도 포함된다. 가령, 한 알의 사과와 과일 접시가 있는 세계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때 ‘접시’와 ‘사과’는 물리법칙으로 설명이 가능한 대상 영역의 대상이며, ‘접시 위에 사과가 놓여 있다.’라는 시공간적 정황은 이 대상 영역의 사실이다. 가브리엘은 인식 주체가 어떤 것이 진리인지 판별이 가능한 것은 사실뿐이며, 사실이 참일 때 진리라고 말한다.

가브리엘은 이렇게 인식 주체가 사실의 진위를 판별할 수 있다는 것은 곧 의미장을 통해 세계에 접근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의미장이란 인식 주체가 어떤 대상 영역의 대상을 인식할 때, 대상이 구체적이고 특정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조건이나 배경으로, 가브리엘은 의미장에 나타나는 대상을 실재한다고 표현한다. 예를 들면 내 손은 나의 신체라는 의미장에 나타나지만, 내 손을 글로 묘사했다면 그 글이라는 의미장에도 나타난다. 어떤 경우는 내 꿈이나 오해라는 의미장에서 그만의 방식으로 나타난다. 즉 세계에는 무수히 많은 의미장이 동등하게 존재하며, 모든 의미장에서 나타나는 손들은 모두 각각의 의미장에서 실재이다. 하지만 가브리엘은 하나의 의미장에 실재한다고 곧 참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는 하나의 대상이 나타나는 의미장이 최소한 두 개 이상 존재해야 실재에 대해 의미 있게 사유하고 토론이 가능하며, 참과 거짓을 밝힐 수 있다고 말한다.

이는 우리가 다양한 의미장을 통해 세계를 경험하며 각각의 의미장으로 경험하는 세계들이 공존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가브리엘은 관념론자나 자연주의자들이 정신이나 자연만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단 하나의 의미장만으로 세계에 접근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비판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장하는 정신이나 자연이라는 실체가 진리인지 밝히기 위해서는 그들의 의미장과 동등한 또 다른 의미장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들은 다른 의미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만으로는 실재에 대한 진리 여부, 즉 세계의 본질에 대해 논할 수 없게 된다.

신실재론은 이렇게 다양한 관점이 각자의 실재만이 진리라고 주장하며 충돌하는 현대 사회에 세계의 본질에 대한 확실한 진리 하나를 던져 준다. 그것은 결국 다양한 관점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④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4.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달리 (나)는 특정 철학적 관점의 변천 과정을 설명하고 해당 이론의 발전 방향을 전망하고 있다.
- ② (나)와 달리 (가)는 특정 철학자들의 주장이 가지는 이론적 장점과 시대적 한계를 분석하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특정 철학적 관점이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미친 영향을 제시하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특정 철학자가 제시한 핵심 개념들을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비교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특정 철학적 관점에 대해 비판하는 특정 학자의 견해를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5. (나)의 진실재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미장에 나타나는 대상을 실재한다고 본다.
- ② 세계에는 무수히 많은 동등한 의미장이 있다고 본다.
- ③ 어떤 대상이 하나의 의미장에 실재하면 곧 참이라고 본다.
- ④ 대상 영역이 가지는 특정한 법칙은 대상 영역마다 서로 다르다고 본다.
- ⑤ 대상 영역에는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실도 포함된다고 본다.

6. (가)의 '쇼펜하우어'와 (나)의 '가브리엘'의 입장에서 <보기>에 대해 판단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ㄱ. 모든 인식은 개인이 현실을 이해하는 원리나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ㄴ. 세계의 본질은 감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으며, 이성으로만 세계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

ㄷ. 모든 경험은 우리가 감각하는 세계에 한정되며, 사물의 실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ㄹ. 자연계를 구성하는 모든 대상은 원자로부터 비롯된 물질로 물리적 법칙으로만 설명할 수 있다.

- ① 쇼펜하우어는 ㄱ과 ㄴ에 모두 동의하겠군.
- ② 쇼펜하우어는 ㄷ에 동의하지 않고, ㄹ에 동의하겠군.
- ③ 가브리엘은 ㄷ과 ㄹ에 모두 동의하겠군.
- ④ 가브리엘은 ㄷ에 동의하지 않고, ㄱ에 동의하겠군.
- ⑤ 가브리엘은 ㄹ에 동의하지 않고, ㄴ에 동의하겠군.

7.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는 인식 주체가 경험하는 세계는 의지를 감각 기관으로 포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미가, ㉡에는 여러 의미장으로 경험하는 각각의 세계들은 서로 공존할 수 없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 ② ㉠에는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충분 근거율에 입각하여 떠올린 이미지에 불과하다는 의미가, ㉡에는 단 하나의 의미장만으로는 세계의 본질에 대해 논할 수 없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 ③ ㉠에는 인식 주체가 충분 근거율에 입각하여 세계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가, ㉡에는 대상 영역에 포함된 대상들 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법칙이 없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 ④ ㉠에는 우리가 표상하는 세계는 의지가 객관화된 세계라는 의미가, ㉡에는 하나의 대상이 여러 의미장에 나타날 때는 실재에 대해 참과 거짓을 밝힐 수 없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 ⑤ ㉠에는 우리가 표상하는 세계는 의지가 객관화된 세계와 단절되었다는 의미가, ㉡에는 동일한 대상이 여러 의미장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8. (가), (나)를 이해한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한 원시 부족에는 아이가 홀로 밀림에서 사슴의 뿔을 구해 와야 전사로 인정받는 풍습이 있다. 매일 '사슴의 뿔'을 손에 쥐는 상상을 하던 족장의 아들은 깊은 밤 홀로 밀림에 들어갔다. 길고 단단한 뿔이 난 동물을 보고 '사슴'이라고 생각한 그는 그 동물을 사냥해 뿔을 잘라 왔지만, 아침이 되어서 보니 자신이 착각하고 부족의 흉물인 '노루의 뿔'을 가져왔음을 알았다. 결국 아들은 전사가 되지 못했지만, 족장은 아들이 가져온 뿔에 아들 이름의 첫 글자를 새겨 첫 사냥을 축하했다.

- ① (가)의 쇼펜하우어는, <보기>에서 아들이 착각한 '사슴'과 아침에 본 '노루의 뿔'을 모두 아들이 표상한 것으로 보겠군.
- ② (가)의 쇼펜하우어는, <보기>에서 홀로 밀림에 들어간 '아들'과 아들이 가져온 '노루의 뿔'은 의지가 객관화된 정도가 다르다고 보겠군.
- ③ (나)의 가브리엘은, <보기>에서 '아들이 가져온 뿔'에 '아들 이름의 첫 글자'가 새겨진 정황은 진리인지 판별이 가능하다고 보겠군.
- ④ (가)의 쇼펜하우어와 달리 (나)의 가브리엘은, <보기>에서 아들의 상상 속 '사슴의 뿔'과 아들이 착각한 '사슴'을 모두 실재로 보겠군.
- ⑤ (나)의 가브리엘과 달리 (가)의 쇼펜하우어는, <보기>에서 부족의 흉물인 '뿔'과 아들의 첫 사냥을 축하하는 '뿔'을 서로 다른 실재로 보겠군.

9. ㉢의 문맥상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그는 원칙에 따라 일을 처리한다.
- ② 옆집 아이는 할머니를 잘 따른다.
- ③ 우리는 능선을 따라 산에 올라갔다.
- ④ 우리는 선배를 따라 다음 장소로 이동했다.
- ⑤ 아무도 아버지의 음식 솜씨를 따를 수 없다.

◆ 14-6평 A형 26~27번

[26~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세계관은 세계의 존재와 본성, 가치 등에 관한 신념들의 체계이다. 세계를 해석하고 평가하는 준거인 세계관은 곧 우리 사고와 행동의 토대가 되므로, 우리는 최대한 정합성과 근거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모순되거나 일관되지 못한 신념은 우리의 사고와 행동을 혼란시킬 것이므로 세계관에 대한 관심과 검토는 중요하다. 세계관을 이루는 여러 신념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수준의 신념은 ‘세계는 존재한다.’이다. 이 신념이 성립해야만 세계에 관한 다른 신념, 이를테면 세계가 항상 변화한다든가 불변한다든가 하는 등의 신념이 성립하기 때문이다.

실재론은 이 근본적 신념에 덧붙여 세계가 ‘우리 정신과 독립적으로’ 존재함을 주장한다. 내가 만들어 날린 종이비행기는 멀리 날아가, 볼 수 없게 되었다 해도 여전히 존재한다. 이는 명확해서 논란의 여지가 없어 보이지만, 반실재론자는 이 상식에 도전한다. 유명한 반실재론자인 **버클리**는 세계의 독립적 존재를 부정한다. 그에 따르면, 우리가 감각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는 세계를 인식할 수 없다고 한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세계에 관한 주장을 편다. 그에 의하면 ‘주관적’ 성질인 색깔, 소리, 냄새, 맛 등은 물론, ‘객관적’으로 성립한다고 여겨지는 형태, 공간을 차지함, 딱딱함, 운동 등의 성질도 오로지 우리가 감각할 수 있을 때만 존재하는 주관적 속성이다. 세계 속의 대상과 현상이란 이런 속성으로 구성되므로 세계는 감각으로 인식될 때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버클리의 주장은 우리의 통념과 충돌한다. 당시 어떤 사람이 돌을 차면서 “나는 이렇게 버클리를 반박한다!”라고 외쳤다고 한다. 그는 날아간 돌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점을 근거로 버클리의 주장을 반박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버클리를 비롯한 반실재론자들이 부정한 것은 세계가 정신과 독립하여 그 자체로 존재한다는 신념이다. 따라서 돌을 찬 사람은 그들을 제대로 반박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최근까지도 새로운 형태의 반실재론이 제기되어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논증의 성패를 떠나 반실재론자는 타성에 젖은 실재론적 세계관의 토대에 대해 성찰할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세계관에 대한 도전과 응전의 반복은 그 자체로 인간 지성이 상호 소통하면서 발전해 가는 과정을 보여 준다.

26.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실재론과 반실재론 사이의 논쟁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다.
- ② 세계관은 우리의 사고나 행동의 토대가 되는 신념 체계이다.
- ③ 실재론과 달리 반실재론은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④ 세계가 존재한다는 신념은 세계가 불변한다는 신념보다 더 근본적이다.
- ⑤ 실재론은 세계가 존재하며 그것의 존재는 정신과 독립적이라고 주장한다.

27. **버클리**의 견해와 부합하는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번개가 치는 현상은 감각 경험으로 구성된 것이다.
 ㄴ. ‘비둘기가 존재한다.’는 ‘비둘기가 지각된다.’와 같은 뜻이다.
 ㄷ. 우리에게 지각되는 책상은 우리의 인식 이전에 그 자체로 존재한다.
 ㄹ. 사과와 단맛은 주관적인 속성이며, 둥근 모양은 객관적 속성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 15년 4월 고3 B형 17~20번

[17 ~ 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현대인들에게 무엇인가가 '있다/없다'라는 존재 ㉠ 여부에 대한 판단과 무엇인가가 '좋다/나쁘다'라는 존재에 대한 가치 판단은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특히 현대인들에게 '있다/없다'는 양자택일의 문제이다. 그러나 플라톤은 이와는 다른 ㉡ 관점을 보여준다. 플라톤의 관점에는 무엇이 '있다/없다'라는 존재론적 판단과 무엇이 '좋다/나쁘다'라는 가치론적 판단이 하나로 일치되어 있다. 즉 플라톤에게 존재론적으로 '있다/없다'는 가치 판단의 문제인 것이다.

존재와 그 존재의 가치가 일치한다면, 특정한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플라톤은 그것을 '있음'의 '정도'로 보았다. 이때 '있다'에는 '존재한다'라는 측면에서 실재성의 정도와 '가치 있다'라는 측면에서 완전성의 정도를 모두 포함하게 된다. 따라서 어떤 대상이 다른 대상보다 '더 존재한다'는 것은 그것이 상대적으로 더 완전한 대상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덜 존재한다'라는 것은 그 대상이 덜 완전한 대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플라톤은 가장 실재하는 것, 가장 완전한 것을 '이데아'라고 ㉢ 규정하는데 이는 현실 세계를 초월한 차원에 존재한다. 반대로 세계에 존재하는 만물인 '현상'은, 이데아에 비해 덜 존재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플라톤은 현상을 만드는 창조자로 '데미우르고스'를 설정하고, 그 창조자가 외부의 이데아를 본으로 삼아 현상을 만든 것으로 보았는데, 플라톤은 이 과정을 '모방'이라고 한다. 모방을 통해 현상은 이데아의 본질을 나누어 갖게 된다. 그런데 현상은, 영원불변한 존재인 이데아의 본질을 모방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이다. 이데아와 현상의 관계에 대해 플라톤은 '관여(關與)' 또는 '임재(臨在)'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설명했다. 이때 '관여'와 '임재'는 사실상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개념으로서, 현상이 이데아의 본질과 유사한 정도를 '관여'의 정도라고 하고, 현상이 이데아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정도를 '임재'의 정도라고 한다. 플라톤에게 중요한 것은 개개의 현상들이 이데아에 얼마나 '관여'하는가 또는 이데아가 개개의 현상들에 얼마나 '임재'하는가의 문제이다. 즉 '관여' 혹은 '임재'의 정도가 그 사물의 존재론적이지자 동시에 가치론적 ㉣ 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관여'나 '임재'의 정도가 높다는 것은 그 현상이 이데아의 본질에 더 가깝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완전성의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말'의 이데아가 지닌 본질 중의 하나가 빠르게 달리는 능력이라면 경주에서 빨리 달리는 말일수록 그렇지 못한 말들보다 이데아에 대한 '관여'나 '임재'의 정도가 높은 것이다. 이처럼 현상들에는 관여나 임재가 다양한 정도로 나타난다.

존재론적 판단과 가치론적 판단을 하나로 여기는 플라톤의 ㉤ 사유 방식은 당시 그리스 사람들의 보편적인 사유 방식을 반영하고 있었고, 더 나아가 서구의 고대와 중세의 사유 방식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다.

17.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개념들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특정 이론의 관점을 소개하고 있다.
- ② 비교되는 두 대상을 제시한 후 상반된 관점에서 각각을 평가하고 있다.
- ③ 문제를 제기한 후 그 원인을 다양한 측면에서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 ④ 특정 개념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이를 비판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 ⑤ 통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근거를 들어가며 특정 이론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있다.

18. 윗글의 '이데아'에 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장 완전하면서 현실 세계를 초월한 차원에 존재한다.
- ② 존재론적으로 모든 현상에 비해 가장 실재하는 것이다.
- ③ 관여에 의해서 생겨난 결과물로서 영원불변한 성격을 지닌다.
- ④ 현상이 모방하는 대상이자 현상에 임재의 정도가 결정되는 기준이다.
- ⑤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현상들을 만들어낼 때 창조자가 취하는 본이다.

19. 윗글의 '플라톤'과 <보기>의 ㉠에 대해 보일 수 있는 학생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 라이프니츠는 세상의 창조자인 신을 가장 완전한 존재로 보았다. 그는 신이 자신의 형상을 닮은 존재들을 창조했으며 그 존재들은 신의 형상과는 완전히 같지는 않기에 유한한 존재로 보았다. 따라서 그에게 신은 모든 사물의 근거로서 무한한 존재이다.

- ① ㉠가 신이 창조한 존재를 설명하면서 언급한 유한성은 플라톤의 '덜 존재한다'를 의미하는 것이겠군.
- ② ㉠가 말한 신은, 다른 존재들을 창조할 때 자기 외부의 형상을 본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데미우르고스'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군.
- ③ 플라톤과 ㉠는 모두, 창조자와 존재들 간의 닮은 정도에 주목하고 있군.
- ④ ㉠와 달리, 플라톤은 창조자를 끊임없이 변화하는 무한한 존재로 보고 있군.
- ⑤ 플라톤과 달리, ㉠는 존재의 완전성을 정도의 문제로 파악했군.

20. ㉠ ~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틀리거나 의심할 여지
- ② ㉡: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
- ③ ㉢: 내용이나 성격, 의미 따위를 밝혀 정함.
- ④ ㉣: 어떤 사물이 다른 사물과의 관계 속에서 가지는 위치나 상태
- ⑤ ㉤: 개념, 구성, 판단, 추리 따위를 행하는 인간의 이성 작용

◆ 11년 11월 고2 17~20번

[17 ~ 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간은 자신이 가진 특정한 능력을 통해 궁극적 진리를 인식할 수 있을까? 이 물음에 긍정하는 입장을 서양철학에서는 표상주의라고 한다. 표상주의는 근대인식론의 바탕을 이루며, 서양철학의 주류를 형성해 왔다. 이와 달리 신실용주의 철학자 로티는 표상주의를 비판한 ‘반(反)표상주의’를 통해 서양철학의 새로운 방향을 ㉠ 모색하였다.

로티의 반표상주의는 넓은 의미로 ‘반(反)플라톤주의’라고 할 수 있다. 플라톤은 이데아의 세계가 진정한 진리의 세계이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이데아를 모사(模寫)한 거짓 세계라고 보았다. 이렇게 진리의 세계가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에 존재한다고 보는 플라톤의 관점은 서양철학의 역사를 지배하는 기본적인 관점이 되었다. 이후 플라톤의 전통을 ㉡ 계승한 철학자들은 인간에게 진리의 세계를 비출 수 있는 ‘거울’과 같은 본질적인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 왔다.

하지만 로티는 이들이 진리의 세계를 비춘다고 믿었던 거울이 비춘 것은 사실은 자신의 모습이며, 이들이 이야기한 진리는 초역사적이고, 보편적이며,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지극히 역사적이고, 개별적이며, 상대적인 것임을 철학의 흐름 속에서 확인하였다. 즉 로티는 이들의 거울에 비친 진리가 저마다 다르다는 사실에 주목한 것이다. 따라서 로티는 거울과 같은 인간의 능력은 존재하지 않으며, ‘거울이미지(mirror image)’는 우연히 발생한 하나의 비유에 ㉢ 불과한 것으로 보았다.

로티는 이처럼 우리가 궁극적 진리를 비출 수 없다면 결국 철학은 세계에 대해서 각자의 시각으로 끊임없이 재서술하는 문학적인 작업일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그리고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는 데 소설 쓰기나 시 쓰기와 같은 문학적 작업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로티는 새로운 철학적 방향으로 ㉣ ‘문학적 문화(literary culture)’를 제안했다.

로티가 말하는 문학적 문화는 관념적 차원에서 궁극적 진리를 추구하는 대신,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물음들을 통해서 ㉤ 탐색할 수 있는 참된 의미들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다. 또한 누구나 자신을 둘러싼 세계의 참된 의미들을 창조하고, 이를 타자에게 강요하지 않는 문화이다. 로티는 문학적 문화를 통해 사적 영역에서는 자신의 인식과 신념을 끝없이 쇠신하고, 공적 영역에서는 구성원 간의 대화를 통해 다른 구성원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인정하면서 ‘우리’라는 연대성을 ㉥ 확장해 나갈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17.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 ① 표상주의는 서양철학의 주류를 형성해 왔다.
- ② 반표상주의는 플라톤주의와 대립되는 관점을 지니고 있다.
- ③ 플라톤의 전통을 계승한 철학자들은 인간에게는 진리를 비추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다.
- ④ 로티는 문학적 문화를 관념적 차원에서 궁극적 진리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았다.
- ⑤ 로티는 플라톤의 전통을 계승한 철학자들이 내세운 진리가 저마다 다르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18. ㉠의 특성이 나타난 현대인의 삶의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소속 집단 속의 삶보다는 개인의 사생활을 중시하는 모습
- ② 유행을 무분별하게 따르기보다는 전통적 가치를 중시하는 모습
- ③ 행동이 앞서는 실천적 삶보다는 합리적인 생각을 우선시하는 모습
- ④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기보다는 구성원 간의 다름을 인정하며 함께 하는 모습
- ⑤ 지속적인 인간관계보다는 일회적이고 표면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모습

19. 위 글의 '로티'가 <보기>를 읽고 보일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듀이는 삶의 문제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탐구'라고 하였다. 그에 따르면 삶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들이 끊임없이 변화하듯 탐구의 대상도 끊임없이 달라지며, 문제는 같더라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는 사람마다 다르다. 이런 점에서 듀이는 서양 철학자들이 진리라고 말해 왔던 것들이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도구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 ① 듀이는 플라톤주의 철학의 전통에서 벗어나 있군.
- ② 듀이는 연대의식을 추구함으로써 문제 상황을 발견하고 있군.
- ③ 듀이는 진리의 절대성과 보편성을 부정하는 관점을 취하고 있군.
- ④ 듀이가 말한 삶 속의 문제 상황을 해결해 가는 과정에는 문학적인 작업이 필요할 수 있겠군.
- ⑤ 듀이가 문제 해결의 도구가 사람마다 다르다고 한 것은 자신이 창조한 의미를 타인에게 강요하지 않는 문화와 관련이 있군.

20. a~c를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a : 알려주었다 ② b : 이어받은 ③ c : 지나지 않은
- ④ d : 찾을 ⑤ e : 넓혀

[17~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본질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서양 철학의 핵심적 질문이다. 탈레스가 세계의 본질을 ‘물’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부터 서양 철학은 거의 모든 것들에 대해 불변하는 측면과 그렇지 않은 측면을 탐구하기 시작했다. 본질은 어떤 사물의 불변하는 측면 혹은 그 사물을 다른 사물과 구별시켜 주는 특성을 의미하는데, ㉠본질주의자는 이러한 사물 본연의 핵심적인 측면을 중시한다. 예를 들어 책상의 본질적 기능이 책을 놓고 보는 것이라면, 책상에서 밥을 먹는 것은 비본질적 행위이고 이러한 비본질적 행위는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본질주의자들이 강조하는 사물의 본질이 사실 사후적으로 구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책상 자체가 원래 ‘책을 놓고 보는 것’이라는 본질을 미리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인간이 책상에서 책을 보거나 글을 쓰면서, 즉 책상에 대해 인간이 경험적으로 행동을 해 보고 난 후에 책상의 본질을 그렇게 규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비트겐슈타인의 말을 인용하여 책상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 보자.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적 탐구』라는 저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이러해.’라고 나는 되풀이해서 중얼거린다. 만일 내가 나의 시선을 이 사실에다 그저 아주 명확하게 맞출 수만 있다면, 나는 틀림없이 사물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말했다. 책상을 보고서 책상은 이렇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되풀이해서 중얼거리는 것은 사후적 구성의 논리가 작동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어떤 사물의 본질을 파악한 것만 같은 느낌은 사후적 구성의 반복을 통해 책상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고 착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비트겐슈타인은 또한 그의 저서에서 ‘본질적이니 비본질적이니 하는 것들이 언제나 명료하게 분리되어 있지는 않다.’라고 말한다. 램프의 본질적 기능은 빛을 내는 것이지만 방을 장식하는 기능을 할 수도 있다. 빛을 내는 것이 램프의 본질적 기능이라고 믿으며 램프의 사용 목적에 편집증적으로 집착할 경우, 자신이 믿고 있는 본질을 어기는 타자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

파이프를 그린 화가 마그리트의 「이미지의 배반」이라는 그림을 예로 들어보자. 마그리트는 파이프를 닮은 형상을 그리고 그 아래에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고 써 놓았다. 사람들은 그동안의 경험에 의해 그림 속 형상을 파이프로 인식할 것이지만,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는 글자는 사람들의 인식을 배반하게 만든다. 이 그림을 본질에 대한 문제와 연결해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본질이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적 구성에 의해 획득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결국 본질주의자들이 강조한 사물의 본질은 단지 인간의 가치가 투영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17. 윗글을 통해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물의 본질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 ② 사물의 본질이 사물의 속성을 결정한다.
- ③ 사물의 본질은 사용 목적에 따라 정의된다.
- ④ 사물의 본질과 비본질은 명료하게 구분된다.
- ⑤ 본질과 비본질을 모두 경험한 후에야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

18. <보기>에 대한 ㉠과 ㉡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동양의 불교 사상에서는 오래전부터 공(空)을 이야기해 왔다. 불교에서 본질이란 것은 ‘자기동일성’을 의미하는 ‘자성(自性)’이라고 불린다. 이런 자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다시 말해 ‘무자성’이야말로 불교에서 가장 강조해 온 ‘공’의 핵심적인 의미이다. 불교의 공은 본질을 맹신하는 집착을 치유하기 위해 제안된 개념이다.

- ① ㉠: <보기>의 ‘자성’은 인간 개인이 생각하는 가치가 투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군.
- ② ㉠: <보기>의 ‘자기동일성’은 오랜 수양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후천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군.
- ③ ㉡: <보기>의 본질에 대한 ‘맹신’은 사후적 구성의 반복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군.
- ④ ㉡: <보기>의 ‘공’은 경험적 행동을 통해 얻은 본질의 가치를 강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군.
- ⑤ ㉡: <보기>의 ‘무자성’의 경지는 대상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경지라고 할 수 있군.

◆ 14-6평 B형 17~20번

[17~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흔히 어떤 대상이 반드시 가져야만 하고 그것을 다른 대상과 구분해 주는 속성을 ㉠ 본질이라고 한다. X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면 X에 대한 필요 충분한 속성을 찾으면 된다. 다시 말해서 모든 X에 대해 그리고 오직 X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것을 찾으면 된다. ㉡ 예컨대 모든 까투리가 그리고 오직 까투리만이 평이면서 동시에 암컷이므로, ‘암컷인 평’은 까투리의 본질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암컷인 평은 애초부터 까투리의 정의라고 우리가 규정한 것이므로 그것을 본질이라고 말하기에는 허망하다. 다시 말해서 본질은 따로 존재하여 우리가 발견한 것이 아니라 까투리라는 낱말을 만들면서 사후적으로 구성된 것이다.

서로 다른 개체를 동일한 종류의 것이라고 판단하고 의사소통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체들이 공유하는 무엇인가가 필요하다. 본질주의는 ㉢ 그것이 우리와 무관하게 개체 내에 본질로서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 반면에 반(反)본질주의는 그런 본질이란 없으며, 인간이 정한 언어 약정이 본질주의에서 말하는 본질의 역할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이른바 본질은 우리가 관습적으로 부여하는 의미를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본질’이 존재론적 개념이라면 거기에 언어적으로 상관은 것은 ‘정의’이다. 그런데 어떤 대상에 대해서 약정적이지 않으면서 완벽하고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는 사실은 반본질주의의 주장에 힘을 실어 준다. 사람을 예로 들어 보자. 이성적 동물은 사람에 대한 정의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면 이성적이지 않은 갓난아이를 사람의 본질에 반례로 제시할 수 있다. 이번에는 ㉦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정의를 제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를 이루고 산다고 해서 모두 사람인 것은 아니다. ㉧ 개미나 벌도 사회를 이루고 살지만 사람은 아니다.

서양의 철학사는 본질을 찾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본질주의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어나 지식 등의 본질을 찾는 시도를 계속해 왔지만, 대부분의 경우 아직까지 본질적인 것을 명확히 찾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그래서 숨겨진 본질을 밝히려는 철학적 탐구는 실제로는 부질없는 일이라고 반본질주의로부터 비판을 받는다. 우리가 본질을 명확히 찾지 못하는 까닭은 우리의 무지 때문이 아니라 그런 본질이 있다는 잘못된 가정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물의 본질이라는 것은 단지 인간의 가치가 투영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반본질주의의 주장이다.

17. ‘반본질주의’의 견해로 볼 수 있는 것은?

- ① 어떤 대상이라도 그 개념을 언어로 약정할 수 없다.
- ② 개체의 본질은 인식 여부와 상관없이 개체에 내재하고 있다.
- ③ 어떤 대상이든 다른 대상과 구분되는 불변의 고유성이 있다.
- ④ 어떤 대상에 의미가 부여됨으로써 그 대상은 다른 대상과 구분된다.
- ⑤ 같은 종류에 속하는 개체들이 공유하는 속성은 객관적으로 실재한다.

18. 문맥상 ㉦과 ㉧의 관계와 같은 것은?

	㉦	㉧
①	가위는 자를 수 있는 도구이다	칼
②	노인은 65세 이상인 사람이다	64세인 사람
③	이모는 어머니의 여자 형제이다	어머니의 여동생
④	고래는 헤엄칠 수 있는 포유동물이다	헤엄칠 수 없는 고래
⑤	연필은 흑연을 나무로 둘러싼 필기 도구이다	흑연 심

1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 금은 오랫동안 색깔이나 밀도처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특성으로 정의되어 왔지만 이제는 현대 화학에 입각해 정의되고 있다.

(나) 누군가가 사자와 바위와 컴퓨터를 묶어 ‘사바컴’으로 정의했지만 그 정의는 널리 쓰이지 않았다.

- ① 본질주의자는 (가)를 숨겨져 있는 정확하고 엄격한 본질을 찾아 가는 과정으로 해석하겠네.
- ② 본질주의자는 (나)를 근거로 들어 본질은 사후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겠네.
- ③ 반본질주의자는 (가)에서처럼 널리 믿어지던 정의가 바뀌는 것을 보고 약정적이지 않은 정의는 없다고 주장하겠네.
- ④ 반본질주의자는 (나)에 대해 그 세 가지가 지니는 근원적 속성이 발견되지 않아서 일어난 현상이라고 하겠네.
- ⑤ 본질주의자와 반본질주의자는 모두 (가)를 들어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개체들을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겠네.

20. 글의 특성과 문맥을 고려할 때, ㉠~㉣를 활용한 독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개념의 정확한 이해가 중요하므로 핵심어인 ㉠가 글에서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확인해야겠어.
- ② 글에서 다루는 내용이 추상적이므로 ㉡에 이어진 사례를 통해 앞의 설명에서 이해가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해야겠어.
- ③ 내용 간의 논리적인 관계를 따지는 것이 중요하므로 ㉢가 지시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해야겠어.
- ④ 상반된 두 입장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로 이어진 앞뒤의 내용이 어떤 점에서 다른지 살펴보아야겠어.
- ⑤ 사실과 글쓴이의 의견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를 통해 강조되는 글쓴이의 주장이 타당한지 따져 보아야겠어.

[4~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 책상 위에 빨간 사과가 놓여 있는 상황에 대한 사유 과정은 사과의 형태나 색깔이 감각 기관을 통해 들어오고, 이를 사과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사과가 현실에 실재하는 대상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근대 철학자들 중에는 감각되지 않은 물리적 대상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러한 대상의 실재함은 사유에 의존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러한 의심을 바탕으로 한 여러 철학적 논변이 나타나면서 하나의 공통된 입장이 ㉡ 형성되었다. 그것은 인간의 사유와 독립한 존재가 실재하지 않으며, 사유와 대상이 따로 분리되어서는 어떤 것도 접근이나 이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현대 철학자 메야수는 이러한 입장을 상관주의라고 명명하며, 사유 의존적인 대상뿐만 아니라 인간의 사유와 독립한 존재가 실재한다고 주장한다. 그의 주장은, 상관주의가 유럽 대륙 철학의 주요 입장 중 하나가 되면서 인간의 사유를 대상과 사유의 관계로 ㉢ 제한했다는 문제 의식에서 비롯되었다. 메야수는 인간이라는 종의 출현에 선행하는 존재 전부를 '선조적인 것'이라고 하면서 인간의 사유와 독립한 존재가 실재함을 과학의 발견들이 드러낸다고 주장한다. 가령 방사성 동위 원소의 측정으로 '46억 년 전에 최초의 지구가 존재했다.'라는 것이 ㉣ 입증되었다. 메야수에 따르면, 이는 인간의 사유와 독립한 존재가 실재한다는 증거이다. 그리고 이를 부정하면 선조적인 것을 전제해야만 설명할 수 있는 것들과 충돌을 일으킨다고 보았다.

이렇게 인간의 사유와 독립한 존재가 실재한다고 주장한 메야수는 이러한 존재가 가능성을 가진 우연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 공전하는 달은 ㉥ 일식의 가능성을 가지는 것일 뿐, 달의 공전이 일식과의 인과적인 필연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태양의 변화로 일식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연성을 가진 존재에 대한 그의 주장은 우리 인간이 이러한 존재가 가지는 다양한 가능성들에 대해 사유해야 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메야수는 상관주의에서 부정하는, 인간의 사유와 독립한 존재가 실재하며 이에 대해 사유할 수 있음을 논증했다. 또한 인간의 사유와 독립한 존재가 실재한다고 보는 그의 철학은 인간 중심적인 사유의 세계에서 벗어나 우리의 사유와 세계의 확장을 ㉦ 시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지동설이 인정되기 전까지의 태양계는 천동설에 따라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공전했다고 여겨졌다. 하지만 지금의 태양계는 지동설의 설명과 같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공전하고 있다고 본다. 궤단은 천동설이나 지동설과 같은 것을 [버전]이라고 하였다. 그가 말하는 버전은 대상을 배열하고 범주화하는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인 기호들의 체계이다. 태양을 신처럼 상징하는 그림과 같은 비언어적인 기호나 '지구의 중력 때문에 사과가 떨어진다.'와 같은 언어적 진술 모두 일종의 버전에 따른 것이다.

궤단은 이러한 버전들이 인간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인간이 존재하던 모든 시기에 존재하며, 이 버전들에 의해 세계가 구성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그의 주장에 따르면 세계는 인위적으로 구성된 것이며,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재한다고

㉧ 간주된 것이다. 따라서 그의 관점에서 세계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다. 예를 들면 태양을 태양계의 중심이 되는 항성으로 구성하는 버전이 없던 시기에는 태양은 신이라는 범주로 분류되었을 수 있다. 여기서 태양이 항성으로 존재하게 된 시점은 태양이 태양계의 중심이 되는 항성으로 구성된 버전에 의해 결정된다. 이에 따르면 위의 예는 세계의 존재 시점이 버전에 의해 구성된 시점에 의존하게 됨을 나타낸다. 이는 인간의 사유와 독립한 존재는 실재할 수 없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세계에 대한 궤단의 입장은 버전의 다양성과 상대성을 허용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모든 버전이 세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본 것은 아니다. 그는 '옳음'이라는 것을 제시하면서 옳은 버전만이 세계를 구성한다고 보았다. 그는 옳음을 '적합함'으로 설명하면서, 적합함으로 버전의 옳음을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적합함은 실용, 범주, 세계에 대한 설명적인 측면에서 버전이 적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16세기 무렵의 서구에서 천동설이 옳은 버전이었던 것을 들 수 있다. 천동설은 사회적, 종교적 관점에서 유용했으며, 별의 운동에 대해 적합하게 범주화되었다. 또한 지구의 움직임을 사람들이 느낄 수 없다는 점에서 별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했다. 하지만 후대에 지동설이 옳은 버전이 되었던 것처럼 옳음에 대한 기준은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이 궤단의 입장이다. 그래서 그는 세계를 구성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버전에 대한 궤단의 주장은 '옳음'으로 인정받은 다양한 버전이 만들어지고 이에 따른 다양한 세계들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되어야 세계에 대한 인간의 이해가 더욱 향상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4.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달리 (나)는 과학 분야에서 파생된 특정한 철학 이론의 확립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 ② (나)와 달리 (가)는 특정 철학자의 주장 변화를 통시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특정 철학자의 주장과 관련된 개념을 구체적 예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특정 철학자들의 주장이 가지는 이론적 장점과 시대적 한계를 분석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상반된 입장을 가진 철학자들의 주장에서 보이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고 있다.

5. (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상관주의자는 감각의 작용이 있어야 사유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 ② 메야수는 상관주의의 입장이 인간의 사유 영역을 한정했다고 보았다.
- ③ 메야수는 사유와 독립하여 실재하는 존재는 하나밖에 없다고 보았다.
- ④ 메야수의 철학은 사유와 독립하여 실재하는 존재에 대한 사유가 필요함을 보여 준다.
- ⑤ 근대 철학자 중에는 사유에 의존하지 않는 대상의 실재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

6. (나)의 [버전]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버전은 적합하다고 판단되었을 때만 세계를 구성할 수 있다.
- ② 버전은 세계의 실재성이 입증된 이후에만 구성될 수 있다.
- ③ 인간이 존재하지 않던 시기에도 버전은 존재한다.
- ④ 버전의 적합함은 버전의 '옳음'을 통해 판단된다.
- ⑤ 버전은 '옳음'을 지녔기 때문에 고정불변이다.

7. ㉠~㉣과 관련지어 '상관주의자'와 '굿맨'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의 '빨간 사과'는 상관주의자에게 사유와 분리된 대상이고, 굿맨에게 버전에 의존적인 대상이다.
- ② 상관주의자와 굿맨 모두, 사과가 실재한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에 관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 ③ 상관주의자와 달리 굿맨은 ㉡은 과학적 사실이기 때문에 판단과 무관하게 당연히 옳음이 있다고 본다.
- ④ 상관주의자와 달리 굿맨은 '㉢이 달의 공전 때문에 일어난다.'라는 진술이 감각과 관련된 범주로 분류되어야 옳은 버전이 될 수 있다고 본다.
- ⑤ 굿맨과 달리 상관주의자는 ㉢을 대상, ㉣을 사유로 파악한다.

8. (가), (나)를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철학자 A는 인식 독립적인 대상을 부정하면서 세계는 감각으로 인식될 때만 존재한다고 보았다. 철학자 B는 모든 것을 의심하여 '감각되는 대상', '감각에 따른 인식' 모두 실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한편 철학자 C는 인과 관계에서 원인과 결과의 필연성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래서 우리가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경험의 반복이고, 결과는 경험의 반복에 따른 추측이라고 주장했다.

- ① '선조적인 것'에 대해서 (가)의 메야수는 실재한다고 보고, 철학자 A는 실재하지 않는다고 보겠군.
- ② 철학자 B와 달리 (가)의 메야수는 '감각에 따른 인식'은 실재하지만 '감각되는 대상'은 실재하지 않는다고 보겠군.
- ③ (가)의 메야수와 철학자 C 모두 인과관계에서 필연성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겠군.
- ④ (나)의 굿맨에 따르면 철학자 B가 실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감각되는 대상'은 인위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겠군.
- ⑤ (나)의 굿맨은 세계를 구성할 수 있는 버전이 다양할 수 있다고 보고, 철학자 C는 결과는 경험의 반복에 따른 추측으로 보겠군.

9.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도와서 이루게 함.
- ② ㉡ :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그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음.
- ③ ㉢ : 어떤 증거 따위를 내세워 증명함.
- ④ ㉣ : 어떤 것을 이루어 보려고 계획하거나 행동함.
- ⑤ ㉤ : 상태, 모양, 성질 따위가 그와 같다고 보거나 그렇다고 여김.